

15. 내재해 다수성 적립계 국수용 밀 ‘다중’

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산밀 자급률 향상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국내산 밀의 안정적인 생산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.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재해저항성이 강하고 다수확 품종이면서 품질이 우수한 밀 품종 개발을 목표로 1998년도에 ‘올그루’와 ‘수원252호’를 인공교배한 후대와 제분율이 높은 고분밀을 부분으로 인공교배 한 후 집단재배와 계통 선발 지역적응성시험을 거쳐 추위와 도복에 강하여 생산안정성이 우수하고, 제분율이 높으며 국수용에 적합한 ‘다중’을 육성하였다.

‘다중’밀의 과성은 II이었고, 잎의 색은 녹색이며 폭은 중간정도이고 다소 늘어진다. 줄기 굵기는 중 정도이며 종실은 적색을 띤다. 출수기는 전작과 답리작에서 각각 4월 28일과 4월 25일 이었으며, 성숙기는 각각 6월 7일과 6월 5일 이었다. 간장과 수장은 각각 89cm와 7.4cm이었으며, m²당 수수와 1수립수는 각각 959개와 33개 이었으며, 10중과 천립중은 각각 804g과 38.7g이었다. 지역적응시험 수량은 전작 조건에서 6.57MT/ha, 답리작 조건에서 5.43MT/ha를 나타냈다. 제분율은 73.9%로 높고, 단백질 함량은 13.2%, 회분함량은 0.40%, 밀가루 밝기는 90.53으로 약간 밝았다. 면대 밝기는 80.86으로 약간 어두웠지만, 삶은 국수의 경도는 3.33N, 탄성과 점성은 각각 0.94와 0.68로 국수 적성이 우수하였다. 1월 최저 평균 기온 -10℃ 이상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며, 국수용 밀의 품질고급화와 재배안정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.

[표] ‘다중’의 주요 농업적 특성 및 국수 가공적성

(지적, '08~'10)

품종명	성숙기 (월.일)	간장 (cm)	수량 (MT/ha)	수발아율 (%)	제분율 (%)	국수밝기 (L)	국수경도 (N)
다 중	6. 5	89	5.43	5.1	73.9	80.86	3.33
금 강	6. 5	84	5.24	29.8	73.6	80.62	4.03



〈출수기 및 종실〉



〈적응지역〉

[그림] ‘다중’의 출수기, 종실 및 적응지역